

Japan Weekly Digest

2011. 12. 10. ~ 12. 16.

☐ 금주의 이슈

- 한일정상회담 개최
- 일본재생 기본전략 기본안 정리
- 일본의 무역장벽, 미하원소위원회에서 우려 표명
- 한국 온라인 게임 넥슨, 일본에서 최초로 상장

☐ 일본기업전략

- FTA체제하에서 새로운 일본의 자동차 생산방식
- 후지전기, 중국에서 에너지절약 사업 본격화

☐ 경제산업성 동향

- TPP 겨냥, 상표인정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상표법 개정
- 한·중·일FTA 산·관·학 공동연구위원회 7차회의 결과발표
- 경제산업상, EU와 경제연대협정(EPA) 협의

☐ 보고서 리뷰

- 『일본의 비교우위에 대한 재고』 일본 내각부, 12월13일



협회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 금주의 이슈

□ 한일정상회담 개최

- 12월 18일, 일본 교토에서 노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음

□ 일본재생 기본전략 정리

- 일본 국가전략회의는 대지진 부흥과 경제성장 동력에 초점을 맞춘 「일본재생의 기본전략」을 마무리함. 재생 에너지 등 환경 분야의 육성 및 인프라 사업의 해외전개를 성장의 기둥으로 삼아, 2020년도까지 연평균 명목경제성장을 3%정도 목표를 설정
- 노다 총리는 일본 재생에 전력투구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기본안에는 TPP를 비롯한 FTA도 반영, 당면한 중요과제로 디플레의 종식을 설정하고 향후 2년 정도 정부와 일본은행이 일체가 되어 디플레 탈출을 위해 총력하기로 함

□ 일본의 무역장벽에 대한 美하원소위원회 우려 표명

- 美하원 세입위원회무역소위원회는 TPP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농업, 자동차, 일본의 우정문제 등 미·일 2국간 문제에 관해 폭넓은 우려를 표명
- 공청회는 TPP전반에 걸쳐 비교적 많은 의원들이 일본의 상황에 언급, 특히 소위원회의 민주당 유력 의원인 맥더모트의원이 일본시장의 폐쇄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개별분야에서도 농업, 자동차, 약품 분야의 무역장벽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
- 다른 의원들도 미국의 농업, 자동차업체가 오랜동안 일본의 무역장벽에 직면해오고 있다는 등의 발언이 있었음

□ 한국 온라인 게임 넥슨, 일본에서 최초로 상장

- 국내 최대 온라인게임업체 넥슨(NEXON)의 일본법인 넥슨 재팬이 14일 도쿄 거래소에 상장함. 넥슨 재팬은 올해 일본 증시 상장기업 중 최대 규모인 5,560억엔(약 8조1,000억원)의 시가총액을 기록
- 넥슨은 일본과 한국 및 중국 외에 유럽·미국에서도 PC용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이템 과금이 주된 수입원임

◆ 일본기업전략

□ FTA체제하에서 새로운 일본의 자동차 생산방식

- 멕시코는 중국에 이어 닛산의 자동차 생산·수출의 2대 거점
 - 닛산자동차가 멕시코에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산 60만대의 신공장을 건설, 2013년말부터 가동할 예정으로 닛산의 멕시코 내 생산규모는 130만대로 일본 내 생산규모를 능가
 - 신규 공장은 멕시코 중부 아구아스카리엔트스주에 건설될 예정으로 연산 20만대의 생산라인을 3개 설치하여 엔진 등 기간부품도 현지생산
 - 주로 북미에서 판매되는 소형차 센트라 등 신흥국 수출용 저가격차종을 생산할 예정. 닛산은 멕시코를 회복기조에 있는 북미시장의 소형차 생산·수출거점으로 활용한다는 전략
 - 닛산은 2016년까지 중기경영계획으로 세계판매대수를 720만대 이상, 세계시장 점유율 8%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코스트경쟁력이 있는 국가를 수출허브로 설정
 - 일본의 자동차업체은 미·일 무역마찰 등을 배경으로 미국 등 대시장권에서의 현지생산을 확대. FTA나 광역경제권을 활용하여 코스트경쟁력이 있는 국가를 수출허브로 삼아 집중생산하는 닛산의 대응방식은 FTA체제하에서 자동차의 새로운 생산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음
 - 닛산 외에 마쓰다나 혼다도 멕시코에 신규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앞으로 부품이나 소재메이커들의 멕시코 생산이전도 이루어질 전망

□ 후지전기, 중국에서 에너지절약 사업 본격화

- 후지전기가 중국에서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 2개 현지기업과 제휴하여 석유화학, 철강 등 대형플랜트와 오수처리시설용 전력소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기기·설비나 서비스를 제공
- 제휴기업은 플랜트용 자동차화설비 관련 민영 대기업인「中控科技集团」으로, 후지전기는 동사에게 전력소비를 억제하는 인버터나 제어기기를 공급하는 한편, 다른 하나는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국영기업「山東德利環保工程」으로 동사에게는 인버터로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노하우를 제공
- 후지전기는 2013년 대중국 사업의 전체 매출액을 금년 예상매출액보다 80%가 많은 1,500억엔 정도로 늘릴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중국 현지 유력기업과의 제휴전략을 추진해나 간다는 전략임

◆ 경제산업성 동향

□ TPP 겨냥, 상표인정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상표법 개정

- 일본 특허청이 기업의 로고마크 등을 보호하는 상표법 개정에 착수. 상표의 보호대상을 문자나 기호, 도형만이 아니고 CM송, 로고의 작동, 제품에 붙어 있는 마크의 위치 등으로 확대할 방침. TPP 교섭참가에 대비한 지적재산권 보호책의 일환임
- 미국과 유럽은 이미 상표등록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 일본도 TPP에 참가하게 되면 교섭상대국으로부터 상표제도를 국제표준에 맞추도록 요구받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 전에 개정해둔다는 특허청의 구상
- 일본과 미국·유럽만이 아니고 아시아에서도 넷 보급과 함께 음성 및 동작 등이 광고에 이용되는 사례가 급증, 상품등록이 늦어지면 그만큼 기업경영에도 큰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대상 상표의 범위를 미리 확대해 두어야 한다는 것임

□ 한·중·일FTA 산·관·학 공동연구위원회 7차회의 결과 발표

- 12월 14~16일 한국 평창에서 개최된 한·중·일 FTA산·관·학 공동연구 제7차 회의에서 공동연구를 완료했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발표
- 공동성명의 주된 내용
 - 연구보고서 발표 시기 : 내년 중국에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이전
 - 한·중·일 FTA에 적용되는 4가지 지침적 원칙에 관한 제언
 -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 WTO룰과의 정합성 유지, 상호주의와 호혜에 기초한 균형있는 성과와 win-win-win을 지향, ▷한·중·일 FTA 교섭이 각국의 민감한 분야에 대하여 배려하면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

□ 경제산업상, EU와 경제연대협정(EPA) 협의

- 에다노 경산개신은 15일 주네브에서 EU 무역투자담당장관과 회담을 갖고, 일본·EU간 경제연대협정에 관하여 협의
- 내년 4~6월, 교섭개시를 목표로 대상 범위 결정 등 예비교섭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고, EU가 제기하고 있는 의료기기나 식품에 대한 일본의 인증취득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용의가 있다고 설명

◆ 보고서 리뷰

『일본의 비교우위에 대한 재고(再考)』

일본 내각부, 12월13일

□ 일본의 비교우위에 대한 리카도이론의 설명력 떨어져

-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약화 대책과 관련하여 법인세, 엔고 시정 등 업종·부문의 횡단적인 정책에 의한 국제적 조화(equal fitting)가 중요하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함
- 리카도 이론에 의한 실증분석결과에서 일본을 포함한 G7의 무역은 반드시 상대적인 단위노동비용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일본의 경우 상대적인 단위노동비용이 비교우위에 플러스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리카도이론의 설명력 떨어짐.
- 이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약이나 설명변수의 부족 등 기술적인 문제 외에 산업내무역으로 이행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요인임.

□ 헉셔-올린 이론에 의한 일본·독일간 비교우위 비교

- 헉셔-올린 이론에 의한 실증분석결과에서는 일본의 경우, 자본부국으로서 자본·노동비용이 높은 재화를 수출하고 있는 점이 명확히 입증됨
- 어느 경우에도 일본의 무역패턴에 대해서는 헉셔-올린이론이 시사 하는 바와 같이 수입에 비하여 수출의 자본·노동비용이 높으며, 나아가 헉셔-올린모델이 성립한다면, 생산요소의 부존상황과 제품수준에서의 비교우위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독일과 일본을 비교
- 일본은 독일 기준으로 여타 품목에 비하여 금속제품이나 화학제품에서 비교우위가 상대적으로 낮음. 또한 기계류에서는 전기기기에 비하여 일반기계나 수송기계 등에서 비교우위가 낮음
- 특히 일본은 독일을 기준으로 볼 때, 의약품이나 비료, 식료 제조기계나 항공기 분야에서 여타 업종에 비하여 비교우위 정도가 매우 낮음. 이 같은 결과는 거시적 요인이 아니고 개별 업종 특유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산업·업종별 특유요인에 관한 정밀한 분석, 개선책 마련에 중요

- 향후 개별업종 특수한 요인(일본의 해당제품에 대한 주요국의 수입규제, 일본 국내에서의 개발이나 생산 관련 규제 등에 의한 무형의 고비용, 세계적인 과점 등)에 관한 정밀한 분석이 비교우위가 매우 낮은 제품이나 업종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함

* 출처 : http://www5.cao.go.jp/keizai3/discussion-paper/discussion_paper2.pdf

【금주의 일본 주요보고서】

(1) 『독립행정법인 평가연보』 총무성, 12월10일

*출처:http://www.soumu.go.jp/menu_news/s-news/52170.html

(2) 『일본의 비교우위에 대한 재고』 일본 내각부, 12월13일

*출처:http://www5.cao.go.jp/keizai3/discussion-paper/discussion_paper2.pdf

(3) 『시가총액동향으로 본 글로벌 구조 변화』 히타치종합계획연구소, 12월13일

*출처:http://www.hitachi-hri.com/research/organ/pdf/vol6_2_8.pdf

(4) 『글로벌경쟁하에서 금후 중소기업정책의 방향』 경제산업성, 12월15일

*출처:http://www.meti.go.jp/committee/chuki/kigyouryoku/006_haifu.html

(5) 『기업내무역 : 기업이론과 신무역이론의 통합』 경제산업연구소, 12월16일

*출처:<http://www.rieti.go.jp/users/tanaka-ayumu/serial/008.html>

(6) 『서비스부문 및 제조업부문에서 다국적기업』 경제산업연구소, 12월16일

*출처:<http://www.rieti.go.jp/jp/publications/rd/069.html>